

초기경전에 나타난 니뭇따(Nimitta) 연구

이창규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박사수로

lcggyu@naver.com

I. 시작하는 말

II. 니뭇따의 다양한 의미

III. 니뭇따의 발생과 증식

IV. 니뭇따의 두 가지 측면

V. 마치는 말

요약문

본 논문은 오늘날 이미지의 유독성에 주목하여, 이미지의 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초기경전(Pāli-Nikāya)에 나타난 니뭇따(Nimitta)의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붓다에 의하면 일체의 존재는 삼사화합의 접촉을 통해 마음에 나타난 니뭇따일 따름이다. 니뭇따는 우리 자신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외부의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에 의거하여 지각된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생의 순간부터 욕망에 노출되어 있다. 붓다는 일찍이 니뭇따의 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니뭇따의 실상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오염된 니뭇따를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근래의 니뭇따 수행에 대한 관심은 니뭇따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근원적인 접근보다는 선정을 계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니뭇따에 관한 올바른 지혜 없이 선정 성취에만 치중한다면, 자칫 명상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니뭇따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붓다가 언급한 니뭇따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니뭇따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편으로 대부분 명상 수행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문맥의 분석을 통하여 니밋따의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경전의 5부 니까야(Nikāya)에 나타난 니밋따의 용례를 찾아보고, 니밋따의 주요 의미와 기능을 형상적 니밋따, 원인의 니밋따, 심상적 니밋따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니밋따의 발생과 그 증식 과정에 따른 장애로서의 니밋따와 수행으로서의 니밋따를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니밋따의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니밋따(Nimitta), 초기경전(Pāli-Nikāya), 심상(mental image), 감성, 원인, 삼매, 부정관

I. 시작하는 말

오늘날 우리는 이미지 범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 사회의 발전과 미디어의 발달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단순히 사물을 표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지식이나 정보를 시각화하는 형태로 변화함으로써 인간의 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실이 아닌 가공 이미지가 사람들의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되어 현실과 다름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공 이미지에 노출된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가치의 공유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의 매혹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세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붓다는 일찍이 이미지의 증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람들이 이미지의 매혹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였다. 사랑스런 이미지에 매혹되어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보면 감각적 쾌락에 젖어들게 되고 점점 그것을 탐착하여 헤어날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혼란된 마음챙김(sati)으로 형상을 보면, 사랑스런 니밋따(piyanimittam)에 주의가 기울어져 오염된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마침내 그것에 탐착하고 만다. 그래서 형상에서 생겨난 갖가지 느낌들이 안에서 자라나 마음이 혼란하게 되어 탐욕과 분노도 더불어 자라난다. 이와 같이 괴로움을 키운다면, 그에게 열반은 멀어지게 된다.¹⁾

매혹적인 이미지에 관심을 기울여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탐욕의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감각적 욕망이 덧입혀진 이미지의 세계에 종속되어 고통의 삶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매혹적인 이미지의 무분별한 수용과 무비판적 태도로 인해 개인적·사회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미지의 부주의한 수용에 대한 붓다의 지적은 오늘날 이미지 범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붓다가 초기경전(Pāli-Nikāya)²⁾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미지의 다양한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붓다는 초기경전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특성을 ‘니밋따(Nimitta)’라는 팔리어(Pāli)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니밋따라는 용어는 명상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불교 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니밋따에 대한 연구는 니밋따의 용례 분석을 통한 개념의 정의, 유사 용어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니밋따의 명상적 활용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니밋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분석과 정의이다. 그러나 국내의 니밋따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으로 대부분 명상 수행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일중스님은 「미얀마 파옥 사야도가 지도하는 호흡관(Ānāpānassati) 수행법」³⁾에서 니밋따를 이용한 아나빠나사띠 수행 방법을 파옥사야도의 법문을 통해 기술하였고, 미

1) SN.IV, p.73. ; 전재성 역주, 『쌍웃따니까야 4』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7), p.315 참고.

2) 본고에서의 초기경전은 빠알리 니까야(Pāli-Nikāya)를 저본으로 함.

3) 일중스님, 「미얀마 파옥 사야도가 지도하시는 호흡관(Ānāpānassati) 수행법」, 『불교와 문화』 통권 제69호 (서울: 불교문화원, 2006), pp.62-75.

산스님은 『『대념처경』의 주석서에 대한 이해』⁴⁾에서 니밋따를 활용한 호흡관법은 주석서에 바탕한 것으로 『대념처경』을 포함한 초기경전의 어디에도 니밋따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지산스님은 『붓다의 길 위빠사나의 길』⁵⁾에서 니밋따를 활용한 아나빠나사띠와 몸의 32부분에 대한 관찰 및 까시나 수행법을 미얀마 파옥센터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물들은 니밋따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근원적인 접근보다는 선정을 계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니밋따에 대한 올바른 지혜 없이 선정 성취에만 치중한다면, 자칫 명상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니밋따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붓다가 언급한 니밋따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문맥의 분석을 통하여 니밋따의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초기경전 중 경장의 5부 니까야(Nikāya)에 나타난 니밋따의 용례를 살펴서, 니밋따의 주요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기로 한다. 니밋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니밋따의 발생과 그 증식 과정에 따른 장애로서의 니밋따와 수행으로서의 니밋따를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니밋따의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니밋따의 다양한 의미

1. 니밋따의 용례

초기경전에서 니밋따라는 용어는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어 그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외부

4) 미산스님, 『『대념처경』의 주석서에 대한 이해』,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서울: 흥원사, 2005), pp.49-84.

5) 지산스님 역음, 『붓다의 길 위빠사나의 길』(남양주시: 도서출판 한길, 2005), pp.281-344.

대상의 지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각적·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초기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니밋따의 용례를 분석하여 니밋따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미의 니밋따는 그 용법에 따른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니밋따(nimitta)의 어원을 살펴보면 산스크리트어 ‘ni(down, into)+√mā(measure)’의 중성명사⁶⁾로 접두사 ni(내림, ~에)와 √mā(재다, 측정하다, 부합하다)에서 파생된 ‘어떤 대상의 크기나 모양에 부합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신호’, ‘징조’, ‘전조’, ‘예언’, ‘외관’, ‘표식’, ‘특징’, ‘속성’, ‘현상’, ‘목적’, ‘생식기’, ‘이유’, ‘조건’ 등의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⁷⁾ 이러한 니밋따에 대하여 한역에서는 주로 상(相)으로, 영역에서는 “mark나 sign 또는 명상적 의미로서의 image로 번역되고 있다.”⁸⁾ “mark는 ‘외관, 흔적, 자국, 특성, 성질’ 등의 뜻으로도 쓰이고, sign은 ‘신호, 표시, 징조, 조짐’ 등의 뜻으로도 쓰이며, image는 ‘영상, 잔영, 표상’ 등의 뜻으로도 쓰인다.”⁹⁾ 이처럼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니밋따는 “주관적 개념에 의해 조건 지어진 모든 외적 현상과 마음속의 이미지(images in mind)를 포괄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⁰⁾ 따라서 니밋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니밋따가 사용되는 용례를 어느 정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니밋따의 용례는 초기경전의 5부 니까야에 나타난 문맥의 분석을 통해, 니밋따의 쓰임에 대한 범주를 알아보고, 용법에 따른 공통점을 찾아 그 의미를 규정해 보고자 한다. 분석 내용은 PTS(Pāli Text Society)본 인덱스(index)에 제시된 항목을 바탕으로 하되, 『쿠타까니까야, Khuddaka Nikāya』의 경우 초기경전을 대

6) SED, p.538, 551, 771.

7) PED, p.367.

8) Robert E. Buswell Jr. and Donald S. Lopez Jr.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p.585.

9) 대림스님 · 각목스님 공역, 『아비담마 길라잡이(하)』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9), p.738.

10) Schmithausen Lambert. *Ālayavijñāna: on the origin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a central concept of Yogācāra philosophy* 2vols(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1987), p.201.

표하는 『숫타니파타, Sutta Nipāta』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4부 니까야의 목록에 제시된 니밋따의 용례를 찾아보면, 『디가니까야, Dīgha Nikāya』에 35개 항목¹¹⁾, 『맛지마니까야, Majjhima Nikāya』에 29개 항목¹²⁾, 『쌍웃따니까야, Saṃyutta Nikāya』에 34개 항목¹³⁾, 『앙굿따라니까야, Aṅguttara Nikāya』에 34개 항목¹⁴⁾ 그리고 『숫타니파타』에 3개 항목에 해당하는 총 135개 문구 중에 19가지 내외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초기경전의 5부 니까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니밋따의 다양한 의미와 용례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니밋따의 다양한 의미와 용례

의미		용례	횟수	합계	
형상적 니밋따	mark	외관 ¹⁵⁾	37.0	68	92
		특징, 표식 ¹⁶⁾	7.0		
		특성, 성질 ¹⁷⁾	6.0		
		아름다운 니밋따 ¹⁸⁾	12.0		
		혐오적인 니밋따 ¹⁹⁾	6.0		
원인의 니밋따	sign	신호, 표시 ²⁰⁾	9.0	24	
		징조, 조짐, 예견 ²¹⁾	12.0		
		원인, 조건 ²²⁾	3.0		
심상적 니밋따	mental image	부정의 니밋따 ²³⁾	8.0	36	36
		기억의 이미지 ²⁴⁾	1.0		
		사마타 니밋따 ²⁵⁾	2.0		
		부동의 니밋따 ²⁶⁾	1.0		
		삼매 니밋따 ²⁷⁾	10.0		
		광명 니밋따 ²⁸⁾	1.0		
		분발, 정진 니밋따 ²⁹⁾	5.0		
		반조 니밋따 ³⁰⁾	2.0		
		평온 니밋따 ³¹⁾	1.0		
마음 니밋따 ³²⁾	5.0				
animitta		니밋따 없음 ³³⁾	19.0	19	19
총계		19	147	147	

11) YAMAZAKI M, OUSAKA Y, NORMAN K. R. and CONE M, compiled. *Index to the Dīgha-Nikāya* (The Pali Text Society, Oxford, 1997), p.176.

12) MN.IV. index, p.79.

13) SN.VI. index, p.54.

14) AN.VI. index, p.61.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니밋따의 다양한 용례를 다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분류해 보면, 감각 대상의 겉모습이나 특징, 특성을 나타내는 현상적 측면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이유, 조건을 나타내는 원인적 측면, 그리고 기억이나 명상 수행력과 관련된 심상적 측면이 부각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슈미트하우젠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니밋따란 용어는 감각 대상(āḷambana)의 의미나 원인(nidāna)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한, 명상대상으로서 선택된 전형적인 현상적 형태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⁴⁾ 즉 그는 니밋따를 그 쓰임에 따라 외적 감각대상에 대한 형상의 니밋따, 원인으로서의 니밋따, 명상대상으로서의 현상적 니밋따로 표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니밋

-
- 15) DN. I, p.70, 172, 181, 182.; DN.III, p.225.; MN. I, p.180, 221, 222, 223, 269, 273, 346, 355.; MN.III, p.2, 19, 32, 126, 161, 225, 226.; SN. II, p.252.; SN.III, p.10, 80, 103, 136, 169, 170.; SN.IV, p.104, 168.; SN. V, p.121.; AN. II, p.16.; AN.III, p.99.; AN.IV, p.53.; AN. V, p.135, 206, 348, 351.
- 16) DN. I, p.80.; MN. I, p.100.; AN. V, p.92, 94, 97, 98, 103.
- 17) MN.III, p.163.; SN. V, p.150, 278, 279.; AN. I, p.102, 103.
- 18) MN. I, p.26.; SN. I, p.188.; SN.IV, p.73, 297.; SN. V, p.64, 103.; AN. I, p.3, 87, 200.; AN. V, p.134.; DN.III, p.218.; Sn.,343, p.59.
- 19) SN.IV, p.297.; SN. V, p.103.; SN. V, p.64.; AN. I, p.3, 87, 200.
- 20) DN. II, p.103, 115, 116, 117, 118.; DN.III, p.151, 163, 165.; SN. V, p.259.
- 21) DN. I, p.9, 67, 220.; DN. II, p.209, 225.; DN.III, p.152, 158, 168, 170, 171.; MN. I, p.72.; SN. V, p.442.
- 22) SN. V, p.213.; MN.III, p.157.; AN. I, p.82.
- 23) MN. I, p.4, 119.; AN. I, p.200.; AN.III, p.319, 322.; AN. V, p.134.; SN. I, p.188.; Sn.,343, p.59.
- 24) MN. II, p.62.
- 25) DN.III, p.213.; SN. V, p.105.
- 26) SN. V, p.105.
- 27) DN.III, p.226, 242.; MN. I, p.249.; MN.III, p.112.; AN. I, p.256, 257.; AN. II, p.17.; AN.IV, p.418, 419, 420.
- 28) MN.III, p.161.
- 29) DN.III, p.213.; AN. I, p.256.; AN.III, p.375, 376. AN.IV, p.33.
- 30) DN.III, p.277, 278.
- 31) AN. I, p.256.
- 32) SN. V, p.151-152, 155, 156, 278-279.; AN.III, p.423.
- 33) DN. II, p.100.; DN.III, p.219, 249.; MN. I, p.296; MN.III, p.107.; SN. I, p.188.; SN.IV, p.50, 269, 295, 297, 360, 363.; SN. V, p.154.; AN. I, p.82.; AN.III, p.292, 397.; AN.IV, p.78.; Sn.,344, p.59.; Sn.,577, p.112.
- 34) 슈미트하우젠 저·안성두 역,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 『불교학리뷰』1권 1호(논산시: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6), p.130.

따의 이러한 기능적 용법을 감안하여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니밋따의 다양한 의미를 형상적 니밋따, 원인의 니밋따, 심상적 니밋따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형상적 니밋따

우리는 외부의 다양한 환경과 대상으로부터 전달된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눈을 통해 물체를 보는 시각,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청각, 코를 통해 냄새를 맡는 후각, 혀를 통해 맛을 느끼는 미각, 피부를 통해 감촉을 느끼는 촉각 등의 여러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느끼고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초기경전에 의하면 이렇게 외부 대상과 감각기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 외부 세계의 “모든 니밋따(sabbanimittesu)”³⁵⁾들을 감각적 형상의 니밋따로 표현한다. 여기서 형상(形像, image)은 “사람들의 감각에 나타나는 상(象)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그 상에는 일반적인 것,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표현된다. 그것은 동시에 단순히 지적으로 보여지는 상이 아니라, 감각적 측면이 들어 있는 것이다.”³⁶⁾ 이러한 형상적 니밋따는 여섯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즉 “모양의 니밋따(色, Rūpanimitta), 소리의 니밋따(聲, Saddanimitta), 냄새의 니밋따(香, Gandhanimitta), 맛의 니밋따(味, Rasanimitta), 감촉의 니밋따(觸, Phoṭṭhabbanimitta), 현상의 니밋따(法, Dhammanimitta)”³⁷⁾ 등 모두가 니밋따의 범주에 해당한다. 이들 감각기관에 의거하여 발생한 니밋따들은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을 유발하는 니밋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중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시각적 자극에 대한 형상의 니밋따이다.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의 니밋따와 세세한 부분상(anuvyañjana)에 사로잡히지 마라.³⁸⁾

35) MN.III, p.19, 32.; SN.II, p.252.; SN.III, p.80, 103, 136, 169, 170.; AN.IV, p.53.

36) 임석진 외 25명 지음,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2008), p.788.

37) SN.III, p.10.

형상적 니밋따는 어떤 대상이 눈의 시각을 통해 나타나는 외적인 이미지 즉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사람의 걸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 형상의 니밋따는 사람의 “전체상”³⁹⁾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세한 부분상을 뜻하는 아누비얀자나(anuvyañjana)와 구분되어 진다. 아누비얀자나는 ‘anu(~에 따라서)+vyañjana (accompanying(secondary), 부차적으로 수반되다)’의 합성어인 중성명사로⁴⁰⁾ ‘부차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아누비얀자나는 전체 이미지에 속하는 세부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형상적 니밋따는 어떤 대상의 전체 모습이나 부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깨끗한 거울이나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 니밋따(mukhanimittam)를 살펴보면, 점이 있으면 점이 있다고 알고, 점이 없으면 점이 없다고 아는 것과 같다.⁴¹⁾

여기서 ‘얼굴에 점이 있다’라고 할 때 ‘얼굴 니밋따’는 얼굴의 모습을 나타내고, ‘점이 있다’고 하는 형용사는 얼굴의 상태를 나타낸다. ‘점’은 ‘얼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점’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경전에서는 개인의 특징을 포함하여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니밋따로 언급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어리석은 자의 니밋따(bālanimittāni)와 어리석은 자의 행동 ‘...중략...’ 현명한 자의 특징과 현명한 자의 니밋따(pañḍitanimittāni)와 현명한 자의 행동...⁴²⁾

38) SN.IV, p.168. ; 전재성, 앞의 책 『쌍웃따니까야 4』, p.623 참고.

39) 각목스님, 『디가니까야 3』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6), p.393.

40) PED, p.43.

41) DN. I, p.80. ; 전재성 역주, 『디가니까야』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1), p.179 참고.

42) AN. I, p.102-103. ; 대림스님 옮김, 『앙굿따라니까야 1』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10), p.306 참고.

어리석은 자의 니밋따는 어리석은 자가 지니고 있는 행동 특징을 가리키고, 현명한 자의 니밋따는 현명한 자가 지니고 있는 행동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의 니밋따는 어떤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설명된다. “특성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지속적인 행동 특징 또는 반응경향성을 말한다.”⁴³⁾ 어리석은 자는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경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명한 자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경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경전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향성의 비교에 의해서 파악된 특성을 니밋따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상적 니밋따의 용법에 해당하는 니밋따들은 외부 대상이 감각기관에 접촉되어 내면에 나타난 이미지, 즉 색·성·향·미·촉·법의 느낌에 따른 이미지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특징, 특성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원인의 니밋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한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즉 어떤 현상도 그것이 생겨날 만한 원인에 의하여 그 결과로서 존재하며, 그 원인이 소멸하면 그 현상도 소멸한다. 어떤 현상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 다른 현상이 일어난 경우,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한다. 『앙굿따라니까야』의 「니밋따 경(Nimitta-sutta)」에 의하면 니밋따는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이유나 원인으로 표현된다.

비구들이여, 니밋따가 있기 때문에 불선법들이 일어난다. 니밋따 없이는 불선법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 니밋따를 버림으로써 불선법들은 일어나지 않는다.⁴⁴⁾

43) 한국교육심리학회 편,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2000), p.439.

여기서 니밋따는 “이유(basis)나 원인(reason)을 의미한다.”⁴⁵⁾ 니밋따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불선법이 일어나고, 니밋따라는 원인이 없으면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원인인 니밋따와 결과인 불선법들은 인과관계에 따른 상호의존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니밋따에 의해 불선법이 생겨나고 그 불선법에 의해 니밋따가 지속되는 상호작용의 조건 속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초기불교적 인과관계에서 원인(因, hetu)은 조건(緣, paccaya)과 동일한 것으로,⁴⁶⁾ 원인으로서의 니밋따는 “nidāna(reason), hetu(cause), paccaya(condition) 등의 용어들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⁴⁷⁾ 초기경전에서 “nidāna는 원인이나 연유, 유래, 기원 등의 의미로 쓰이고, hetu는 원인이나 이유를 모두 지칭하는 뜻으로 쓰이며, paccaya는 원인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특히 paccaya는 불교의 인과성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용어이다.”⁴⁸⁾ “뺏짜야의 원인은 일방적인 힘의 의미가 아니라 상호관계라는 의미로 표현된 것이다. 즉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이 어떤 현상을 조장하거나, 촉매 작용을 하거나, 야기한다는 것이다.”⁴⁹⁾ 초기경전에 의하면 니밋따를 원인으로 한 인과관계는 니밋따가 독자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인연이 합해져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비구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며 지내는데 고통의 능력이 생겨난다. 그는 이와 같이 ‘나에게 고통의 능력이 생겨났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것은 니밋따가 있고 인연이 있고 형성된 것으로 조건이 있는 것이다. 니밋따가 없고 인연이 없고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건이 없이 이러한 고통의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⁵⁰⁾

44) AN. I, p.82.; 대림스님, 앞의 책 『앙굿따라니까야 1』, p.255 참고.

45) Bodhi Bhikkhu. *The Numerical Discourses of the Buddha: A Translation of the Aṅguttara Nikāya*(Boston: Wisdom Publication, 2012), p.1633.

46) 전재성 저(2002).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서울: 한국깨알리성전협회, 2002), p.63.

47) Anālayo Bhikkhu. “NIMITTA”, *Encyclopaedia of Buddhism*, Vol.VII(Colombo: Government of Sri Lanka, 2003), p.177.

48) 전재성, 앞의 책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pp.66-71.

49) 조애너 메이지 저·이중표 역,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 (서울: 불교시대사, 2004), p.89.

고통이라는 현상은 니밋따가 있고 인연이 있고 형성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모든 현상은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는 상호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연기적 관계로 설명된다. 또한 니밋따는 상호의존성에 의거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이유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론적 근거로도 사용된다.

비구들이여,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선구이자 징조 니밋따(pubba nimittam)가 되는 것은 바로 새벽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꿰뚫는데 그 선구이자 징조 니밋따가 되는 것은 올바른 견해이다.⁵¹⁾

원인의 니밋따는 사물이나 현상의 신호나 표시를 통해 뒤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해 내는 추론의 조건으로 사용된다. 어떤 신호나 표시 등을 조건으로 하여 추론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징조(pubba nimittam),”⁵²⁾ “전조(uppāda-nimitta),”⁵³⁾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전조나 징조를 통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파악하는 예측가능성은 막연한 추정이나 추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 니밋따를 조건으로 하여 인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한 자들에 의해 전조나 징조의 배후에 변하지 않는 뉘가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 원인의 니밋따는 잘못된 관념들로 이끌릴 수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결정론적 예측가능성은 배제된다. 결정론과 비결정론을 지지하는 우연론을 극단으로 폐기해버리는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중도적인 예견가능성은 오직 인과관계를 여실지견하는 지혜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⁵⁴⁾ 따라서 예측가능성은 “니밋따에 능통한 수행하고 현명한 자들”⁵⁵⁾ 즉 생겨나는 “전조와 징표를 아는 현명한 자들”⁵⁶⁾ 만이 알아

50) SN.V.213.; 전재성, 앞의 책 『쌍웃따니까야 6』, p.286 참고.

51) SN.V., p.442.; 전재성 역주(2007), 『쌍웃따니까야 7』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7), p.707 참고.

52) DN.III, p.158, 171.

53) DN. I., p.220.; DN. II., p.209, 225.

54) 전재성, 앞의 책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p.79.

보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원인의 용법에 해당하는 니밋따는 상호의존성에 의거한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나타나 있는 신호, 표시, 징조, 조짐 등을 통해 뒤에 일어날 사건이나 현상을 예측하는 이유, 원인, 조건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심상적 니밋따

형상적 니밋따가 외부 대상을 향한 외적인 이미지들이라면, 마음 속 내부 대상을 향한 내적인 이미지들도 있다. 오감에 의거한 감각적 형상들이 외적인 이미지에 해당하고, 마음에 의거한 현상의 니밋따(Dhammanimitta)들은 내적인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내적인 이미지들은 기억, 상상력, 수행력 영상 등에 해당하는 심상적 니밋따들의 작용으로 파악된다. 심상적 니밋따는 인지 심리학에서의 심적 이미지(mental imagery)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명상과 관련한 수행적 요소에서는 차이를 나타낸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심적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현실에 자극 대상이 없을 경우에 생기는 의사 지각적 경험’이라고 정의 된다. 심적 이미지는 심적 표현(표상: representation)의 한 형태이며, 심상 혹은 단순히 이미지라고도 불린다.”⁵⁷⁾ 일반적으로 심상의 현상은 잔상, 회귀상, 직관상, 환각, 꿈, 백일몽, 수면시상, 기억 이미지, 상상이미지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인지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기억 이미지와 상상 이미지이다.”⁵⁸⁾ 초기경전에서도 기억의 이미지를 심상적 니밋따의 한 용법으로 언급하고 있다.

55) DN.Ⅲ, p.168.

56) DN.Ⅲ, p.158. ; 전재성, 앞의 책 『디가니까야』, p.1288 참고.

57) 行場次朗·箱田裕司 편저·조경덕·남기춘 공역, 『지성과 감성의 심리학』 (서울: 용보출판사, 2002), p.97.

58) 앞의 책 p.98.

존자 랏타빨라의 친가의 하녀는 지난 밤에 남은 죽을 존자 랏타빨라의 발우에 부으면서, 그의 손과 발과 음성이 주인의 니밋따(nimittam aggaheṣi) 입을 알아보았다...⁵⁹⁾

존자 랏타빨라의 하녀는 어둑어둑한 밤에 어떤 사람의 손과 발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그 손과 발, 그리고 목소리를 기억해 내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림으로써 주인임을 알아보게 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의 손과 발과 목소리에 대한 이미지를 오감에 의거한 형상적 니밋따라고 한다면, 기억을 통해 내면에 떠오른 주인의 이미지는 심상적 니밋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심상적 니밋따는 마음의 내부 감각에 속하는 것으로 오감의 외부 감각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마음이라는 내부 감각은 외부 대상을 향한 지각 이미지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내부 대상을 향한 심상을 생성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감에 의한 형상적 니밋따는 외부 대상의 지각에 근거해서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의 이미지가 발생한 것이라면, 심상적 니밋따는 외부 대상이 아닌 기억이나 상상 등에 의해 발생한 관념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심상적 니밋따는 인지 심리학에서 거론되는 심적 이미지보다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명상과 관련한 수행력이나 선명한 영상에 대한 언급을 통해 나타난다. 이 같은 경전의 예는 시체를 명상 주제로 한 부정관의 설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 비구는 일어난 경이로운 삼매의 니밋따(samādhi-nimittam)를 잘 보 호한다. 즉 해골이 된 지각(saññaṃ),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지각, 검푸른 피멍에 대한 지각, 끊어진 지각, 부풀어 오름에 대한 지각이다.⁶⁰⁾

부정관의 명상 주제인 해골 또는 우글거리는 벌레 등에 대한 형상의 이미지를 지각하고 관념화 하여 관념 속에서 취한 영상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반복적

59) MN. II, p.62.

60) DN. III, p.226. ; 각목스님, 앞의 책 『디가니까야 3』, p.394 참고.

인 노력을 통해, 경이로운 삼매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심상적 니미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심상적 니미따는 명상 주제에 해당하는 이미지에 집중함으로써 그 이미지가 의식에 현상화·관념화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심상적 니미따는 단순히 내부의 심상현상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떠오른 심상을 내적 대상으로 삼아 삼매의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용법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요한슨은 이러한 명상적 용법을 감안하여 심상적 니미따를 “내부 감각(意, mano)에 의해 산출된 심적 과정(mental processes, dhamm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⁶¹⁾ 슈미트하우젠은 “관념의 시각화(visualisierenden vorstellung)⁶²⁾란 표현을 통해, “관상(觀想)하는 생각 속에서 명상대상의 현상적 상의 재산출이 문제되는 경우 nimitta를 ‘관념상’으로 명시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⁶³⁾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심상적 니미따는 외부 대상에 의거 하지 않고 기억이미지를 통해 마음에 표상된 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심상을 활용한 수행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할 수 있겠다. 즉 기억에 의해 표상된 심상을 내적 대상으로 삼아 수행적 이미지로 재산출된 관념상으로서의 심상적 니미따라고 하겠다.

III. 니미따의 발생과 증식

1. 니미따의 발생

붓다에 의하면 일체의 존재는 삼사화합의 접촉을 통해 마음에 나타난 이미지일 따름이다. 사물의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난 것을 니미따라고 할

61) Johansson, Rune. E. A. *The Dynamic Psychology of Early Buddhism*(London: Curzon Press, 1979), p.93.

62) Schmithausen Lambert. “Versenkungspraxis und erlösende Erfahrung in der Śrāvākabhūmi.” *Epiphanie des Heils, Zur heilsgegenwart in indischer und christlicher Religion*(ed. G. Oberhammer, Vienna, 1982), p.63.

63) 슈미트하우젠 저·안성두 역, 앞의 논문, p.130.

때, 이것은 니밋따에 의거하여 사물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사물은 인간의 감각기관과 대상이 접촉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니밋따는 어떤 대상이 감각기관과 접촉하여 지각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삼사화합의 접촉을 통해 “느낀 것(vedeti)을 지각하고(sañjānāti), 지각한 것을 의식하게 된다.”⁶⁴⁾ 감각기관과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 느낌(vedanā)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음의 지각 작용에 의해 형상화됨으로써 니밋따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지각(saññā)이란 “개념적인 파악”⁶⁵⁾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감각 대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한계 안에서만 성립한다. 지각은 니밋따의 발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을 통한 느낌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지각과 느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각은 각각의 ‘감각의 대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느낌은 ‘감각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⁶⁶⁾ 니밋따는 ‘감각의 대상’을 형상화하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느낌(vedanā)보다는 지각(saññā)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saññā는 접두사 ‘sam’과 어근 ‘√jñā(to know, have knowledge)’⁶⁷⁾에서 파생된 여성명사로 ‘알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나는 다양한 감각적 지각들을 식별해서 아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감각적 대상을 지각을 통해 형상화하는 마음의 기능이 니밋따라고 한다면, 대상에 대한 “식별적인 기능”⁶⁸⁾을 하는 것이 산나이다. 니밋따와 산나는 감각적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지각된 정보를 처리하는 양태는 서로 다르다. 니밋따가 지각한 정보를 형상화하여 감성 작용을 유발하는 작용을 한다면, 산나는 지각한 정보를 식별하여 “개념(notion) 작용을 일으키고 이름 붙이는(naming) 작용”⁶⁹⁾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64) MN. I .293.

65) 윌폴라 라홀라 원저·전재성 역저,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p.55.

66) 정준영,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초기경전에서 자아와 무아의 의미」,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서울: 운주사, 2008), p76.

67) SED, p.425.

68) Hamilton, Sue. *Identity and Experience: The Constitution of the Human Being According to Early Buddhism*(London: Luzac Oriental, 1996), p.54.

69) 대림스님·각목스님 공역, 『아비담마 길라잡이(상)』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9), p.200.

느낀 것 없이는 지각할 수 없고, 지각하는 대상 없이는 니미따가 발생할 수가 없다. 니미따와 산냐는 서로를 존립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니미따와 산냐는 대상을 인식하는 내부의 근본 지각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붓다가 세계의 ‘모든 존재’를 ‘모든 니미따(sabbanimittesu)’로 인식하는 밑바탕에는 바로 니미따와 산냐의 지각 기능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니미따의 증식

니미따는 감각기관에 어떤 대상이 지각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외부의 감각 대상이 의식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니라, 지각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개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니미따는 대상을 단순히 형상화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지에 대한 감성 작용을 통해 확산 증식함으로써 감성의 니미따로 발전하게 된다. 감성(Sensibility)의 사전적 의미는 “외계로부터 자극을 받아 감각·지각을 생기게 하는 감수성을 말한다.”⁷⁰⁾ “느낌이 접촉에 이어지는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면”⁷¹⁾ 감성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감성은 느낀 것에 대해 평가나 판단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성질·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⁷²⁾

니미따가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 정보를 형상화하여 감성 작용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면, 니미따는 이제 산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단순한 지각 기능을 넘어서게 된다. 니미따는 지각 기능 보다는 이미지를 감성화하는 감성 기능으로 강화되어 이미지를 증식하는 작용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모든 이미지는 니미따의 감성 작용에 노출되어 내부의 욕망과 성향에 의거하여 가공되고 또 가공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니미따의 증식이다. 초기경전에서는 감성 작용에 의해 가공된 이미지를 아름다운 이미지와 혐오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

70) 임석진 외 25명, 앞의 책, p.12.

71) 임승택, 『초기불교: 심리적 세계의 이해』, 『마음과 철학 불교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13.

72) 하코다 유지 외 지음·강운봉 옮김, 『인지심리학』 (서울: 교육을 바꾸는 책, 2014), p.73.

비구들이여 아름다운 니밋따(subhanimittam)가 있는데, 그것에 지혜롭지 않게 주의기울임을 하는 것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생겨나게 하거나,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증가시키고 확대시키는 자양분이다. ‘...중략...’ 비구들이여 혐오적인 니밋따(patighanimittam)가 있는데, 그것에 지혜롭지 않게 주의기울임을 하는 것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의를 생겨나게 하거나, 이미 생겨난 악의를 증가시키고 확대시키는 자양분이다.⁷³⁾

아름다운 이미지와 혐오적인 이미지는 욕망을 자극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이미지에 지혜롭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을 조건으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켜 니밋따가 점점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니밋따의 심리 작용에 따른 이미지의 가공은, 니밋따와 욕망의 결합을 통해 그 영역을 점점 확대시키게 된다. 가공된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수용하는 감성 작용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괴로움의 패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IV. 니밋따의 두 가지 측면

1. 장애로서의 니밋따

니밋따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으로 일상 속에서 세계를 인식할 때, 마음의 감성 작용에 의거하여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심적 성향에 따라 지각된 대상이 아름답다거나 추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아름다운 것에 다가가고 싶고 추한 것은 피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게 된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니밋따는 외부 대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감성 작용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해석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각하는 니밋따는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욕망에 의해 가공되고 왜곡된 이미

73) SN.V, p.103.; 전재성 역주, 『쌍숫따니까야 5』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7), p.677 참고.

지인 것이다. 욕망에 의존한 니밋따는 집착에 의거하여 유지됨으로써 지속적인 실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재이다. 니밋따는 지각되는 순간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것으로 오직 발생과 소멸의 흐름만 있을 뿐이다. 욕망과의 상호 의존성 속에서 존재를 지속할 뿐 욕망이 소멸하면 니밋따도 소멸하게 되는 무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니밋따의 실상이며, 니밋따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지혜이다. 이 같은 실상에 대한 올바른 지혜 없이 미혹된 마음으로 대상을 지각하게 되면 왜곡된 지각이 일어나고, 왜곡된 감성 작용으로 매혹적인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마음을 탐욕으로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니밋따를 오염시키는 주역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들이다. 번뇌는 마음의 감성 작용을 통해 각종 꾸밈을 만들어 내는 오염원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오염원에 의해 가공된 아름다운 이미지는 탐욕(Rāga)과 성냄(dosa)과 어리석음(moha)의 유독한 불선법들을 증대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는 아름다운 니밋따(subhanimittam)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아름다운 니밋따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탐욕이 마음을 덮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탐욕을 지니고 성냄을 지니고 어리석음을 지니고 더러움을 지니고 마음이 오염된 채 죽을 것이다.⁷⁴⁾

매혹의 감각 대상에 수반된 탐욕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고, 혐오의 감각 대상에 수반된 성냄은 혐오적인 이미지를 만들며, 매혹과 혐오의 중립적인 감각 대상에 수반된 어리석음은 중립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이에 경전에서는 “탐욕도 니밋따를 만드는 것이고, 성냄도 니밋따를 만드는 것이며, 어리석음도 니밋따를 만드는 것이다.”⁷⁵⁾라고 하여 탐·진·치를 수반한 유독한 이미지는 결국 마음을 오염시켜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 주범임을 강조하고 있다.

74) MN. I, p.26.; 전재성, 앞의 책 『맛지마니까야』, p.120 참고.

75) SN.IV, p.297.

한편 오늘날 이미지의 유독성 문제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야르는 이미지에 오염된 현대 사회를 ‘이미지의 폭력’이란 개념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미지와 미디어의 폭력은 서서히 전염되며 우리의 면역성을 없애려한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와 같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의 전염성에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⁷⁶⁾ 유독한 이미지는 뿌리가 깊어서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유독한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무방비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붓다는 진작부터 이미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2. 수행으로서의 니밋따

붓다에 의하면 이미지의 유독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니밋따의 다양한 속성을 여실히 보는 바른 지혜를 갖추는 일이다. “붓다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좋고(ruci), 싫음(aruci), 집착, 욕구(chanda), 성냄(dosa), 어리석음(moha), 그리고 두려움(bhaya) 등의 주관적 태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⁷⁷⁾ 이들은 모두 현실 세계를 여실히 보지 못하도록 장애를 일으키는 불선한 심리적 요소에 해당한다. 불선한 상태(akusalā dhammā)란 “행동으로 표출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갇힌 채로 있는 번뇌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생각과 감정, 의도들이다.”⁷⁸⁾ 니밋따는 감각적 경험에 의거하여 지각된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 즉 감각기관과 대상이 접촉하여 느낌이 일어날 때 수반된 욕망이 니밋따를 오염시킴으로써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붓다는 감각적 지각에 의해 니밋따가 발생하는 순간

76) 본 내용은 보드리야르가 제2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에 초청되어 2002년 9월 28일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에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이미지의 폭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발제문을 인용한 것임.

77) Kalupahana David J. *Buddhist Philosophy: A Historical Analysis*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6), p.19.

78) 비구 보디 지음·전병재 옮김, 『팔정도』(서울: 고요한 소리, 2011), p.130.

부터 욕망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감각기관을 잘 단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눈으로 형상을 보지만 그 니밋따에 집착하지 않고 그 세세한 부분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만약 눈의 감각기관을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과 근심, 그리고 불선한 상태(akusalā dhammā)가 자신을 침범할 것이므로, 그는 절제의 길을 따르고, 눈의 감각기관을 보호하고, 눈의 감각기관을 수호한다. 그는 귀로 소리를 듣지만... 그는 코로 냄새를 맡지만... 그는 혀로 맛을 보지만... 그는 몸으로 감촉을 느끼지만... 그는 정신으로 현상을 인식하지만... 그는 절제의 길을 따르고, 정신의 감각기관을 보호하고, 정신의 감각기관을 수호한다.⁷⁹⁾

“마음의 장애는 정신적인 흐름 속에 지속되지만 감각적 체험의 유입을 통해서 활성화된다.”⁸⁰⁾ 어떤 대상이 감각기관에 접촉할 때 지혜 없이 니밋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잠재되어 있던 탐·진·치의 번뇌들이 활성화되어 니밋따를 불선한 상태로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니밋따의 지각 과정에 탐·진·치의 번뇌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감각기관을 제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선한 니밋따가 발생한 경우, 이미 생겨난 불선한 니밋따를 끊어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선한 니밋따를 버리려는 노력은 그와 상반된 선한 니밋따의 계발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구들이여, 어떤 니밋따에 관해 그 니밋따에 주의기울임을 일으켜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 니밋따와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니밋따에 관련된 주의기울임을 일으켜야 한다. 그가 그 니밋따와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니밋따에 관련된 주의기울임을

79) MN. I, p.180. ; 전재성, 앞의 책 『맛지마니까야』, pp.359-360 참고.

80) 전재성, 앞의 책 『디가니까야』, p.1390.

일으키면,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이 버려지
면 안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⁸¹⁾

서로 상반된 기능의 니밋따는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선한 니밋따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와 정반대되는 선한 상태의 니밋따로 대체시켜나가는 과
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선한 상태(*kusalā dhammā*)란 “번뇌로 오염되지 않은 마음
상태들, 특히 해탈에 도움이 되는 마음상태들이다. 선한 상태의 계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탈의 요소들을 일단 생겨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충분히 성
숙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그 요소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⁸²⁾ 탐
욕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부정관(不淨觀, *asubha*) 수행을 계발해야 한다. 성냄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비관(慈悲觀, *mettā*) 수행의 계발이, 어리석음의 성향이 있
는 사람은 인연관(因緣觀, *idappaccayatāpaṭṭicasamuppāda*) 수행의 계발이 권장된
다.⁸³⁾ 초기 경전에 의하면 불선한 상태의 아름다운 이미지는 선한 상태의 부정
관 수행을 계발함으로써 제거가 가능하다.

부정의 니밋따에 지혜롭게 주의기울임을 할 때 그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
은 탐욕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탐욕은 사라진다. 도반들이여, 일
어나지 않은 탐욕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일어난 탐욕이 사라지는 것은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조건이다.⁸⁴⁾

선한 상태의 부정의 이미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름다운 이미지가 일어
나는 것을 막고, 이미 일어난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고 조건
이 된다. 부정관 수행은 “외적으로는 시체가 부패하여 백골로 변해가는 9가지

81) MN. I, p.119.; 전재성, 앞의 책 『맛지마니까야』, p.275 참고.

82) 비구 보디 지음·전병재 옮김, 앞의 책, p.130.

83) 본 장에서는 불선한 니밋따를 제거하기 위한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수행 중에, 부정관 수행을 중
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84) AN. I, p.200.; 대림스님, 앞의 책 『앙굿따라니까야 1』, pp482-483 참고.

모습 혹은 10가지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난 후 상기하는 방법과 내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31가지 또는 32가지)를 상기하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수행법이다.”⁸⁵⁾ 초기경전에 의하면 선한 부정의 이미지는 시체의 이미지에 대한 반복된 관찰과 지각의 관념화 과정을 통해 계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골을 가지고 삼매의 니밋따를 계발할 경우, 먼저 하얀 해골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지각하여 내면에 관념화 시킨 후, 방해받지 않는 곳에 앉아 기억된 하얀 해골의 심상을 떠올려 대상화 한다. 그런 다음 대상화된 하얀 해골의 심상에 대한 집중을 통해 선명하고 경이로운 삼매의 니밋따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발된 삼매의 니밋따는 불선한 아름다운 이미지와 대체됨으로써 비로소 오염된 니밋따를 제거하게 된다. 초기경전에 있어서 선한 니밋따의 계발은 오염된 니밋따를 제거하기 위한 수행의 핵심을 차지한다. 유독한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니밋따의 실상을 여실하게 볼 줄 아는 올바른 지혜의 계발과 더불어 선한 삼매의 계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마치는 말

본고는 오늘날 이미지의 유독성에 주목하여, 이미지의 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초기경전에 나타난 니밋따의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경전 중 경장의 5부 니까야에 나타난 니밋따의 용례를 찾아보고, 니밋따의 주요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니밋따의 다양한 의미를 형상적 니밋따, 원인의 니밋따, 심상적 니밋따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용례의 분석 결과 초기경전에서의 니밋따는 감각적 지각에 따른 니밋따의 오염과 증식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85) 김재성, 「초기불교에서 오정심관(五停心觀)의 위치」, 『불교학연구』 제14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6), pp.191-192.

다. 또한 감성 작용을 통해 발생한 탐·진·치의 불선한 니밋따를 제거하기 위한 선한 니밋따의 계발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정관은 탐욕의 니밋따를 제거하는데 사용되고, 자비관은 성냄의 니밋따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인연관은 어리석음의 니밋따를 제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한 수행의 향상에 따라 경이로운 삼매의 니밋따를 성취하게 됨으로써 유독한 이미지를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니밋따 없는(animitta)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초기경전에서는 니밋따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오염된 니밋따의 제거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삼매의 니밋따를 계발하는 점진적인 수행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니밋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선정의 성취에만 관심을 기울일 경우 자칫 오염된 니밋따에 빠져들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이미지의 범람 속에서 니밋따에 수반되는 장애의 요소를 제거하고 수행적 요소를 계발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와 바람직한 수행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AN : *Aṅguttara Nikāya*, PTS.
- DN : *Dīghā Nikāya*, PTS.
- MN : *Majjhima Nikāya*, PTS.
- SN : *Saṃyutta Nikāya*, PTS.
- Sn : *Sutta Nipāta*, PTS.

2. 사전류

- SED : Monier-Williams, M.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PED : Rhys Davids, T.W. & Stede, William. *Pali-English dictionary*. London: PTS, 1986.
- 임석진 외 25명 지음,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2008.
- Robert E. Buswell Jr. and Donald S. Lopez Jr.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 YAMAZAKI M, OUSAKA Y, NORMAN K. R. and CONE M, compiled. *Index to the Dīgha-Nikāya*. The Pali Text Society, Oxford, 1997.

3. 단행본류

- Bodhi Bhikkhu. *The Numerical Discourses of the Buddha: A Translation of the Aṅguttara Nikāya*. Boston: Wisdom Publication, 2012.
- Hamilton, Sue. *Identity and Experience: The Constitution of the Human Being According to Early Buddhism*. London: Luzac Oriental, 1996.
- Johansson, Rune. E. A. *The Dynamic Psychology of Early Buddhism*. London: Curzon Press, 1979.
- Kalupahana David J. *Buddhist Philosophy: A Historical Analysis*.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6.

- Schmithausen Lambert. *Ālayavijñāna: on the origin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a central concept of Yogācāra philosophy* 2vols.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1987.
- 각목스님 율김, 『디가니까야 3』,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6.
- 각목스님 지음, 『초기불교입문』, 서울: 이솔출판, 2014.
- 대림스님·각목스님 공역, 『아비담마 길라잡이』(상)(하),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9.
- 대림스님 율김, 『앙굿따라니까야 1』,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10.
- 비구 보디 지음·전병재 율김, 『팔정도』, 서울: 고요한 소리, 2011.
- 월폴라 라홀라 원저·전재성 역저,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 전재성 역주, 『디가니까야』,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1.
- 전재성 역주, 『맛지마니까야』,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 전재성 역주, 『쌍웃따니까야』4,5,6,7,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7.
- 전재성 저,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2.
- 조애너 메이시 저·이중표 역,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 서울: 불교시대사, 2004.
- 지산스님 역음, 『붓다의 길 위빠사나의 길』, 남양주시: 도서출판 한길, 2005.
- 하코다 유지 외 지음·강운봉 율김, 『인지심리학』, 서울: 교육을 바꾸는 책, 2014.
- 行場次朗·箱田裕司 편저·조경덕·남기춘 공역, 『지성과 감성의 심리학』, 서울: 오보출판사, 2002.

4. 논문류

- Anālayo Bhikkhu. “NIMITTA”, *Encyclopaedia of Buddhism*, Vol. VII, Sri Lank: Published by the Government of Sri Lanka, 2003, pp.177-179.
- Schmithausen Lambert. “Versenkungspraxis und erlösende Erfahrung in der Śrāvakabhūmi.” *Epiphanie des Heils, Zur heilsgegenwart in indischer und christlicher Religion*, ed. G. Oberhammer, Vienna, 1982, pp.59-85.
- 김재성, 「초기불교에서 오정심관(五停心觀)의 위치」, 『불교학연구』제14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6, pp.183~224.
- 미산스님, 「『대념처경』의 주석서에 대한 이해」,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서울:

홍원사, 2005, pp.49-84.

- 슈미트하우젠 저·안성두 역,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 『불교학리뷰』1권 1호, 논산시: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6, pp.125-159.
- 일중스님, 「미얀마 파옥 사야도가 지도하시는 호흡관(Ānāpānassati) 수행법」, 『불교와 문화』통권 제69호, 서울: 불교문화원, 2006, pp.62-75.
- 임승택, 「초기불교: 심리적 세계의 이해」, 『마음과 철학 불교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p.1-28.
- 정준영,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초기경전에서 자아와 무아의 의미」,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서울: 운주사, 2008, pp.41-96.

A Study of Nimitta in the Pāli-Nikāya

Lee, Changgyu
Ph.D Candidate.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e present paper takes note of the toxicity of images today, and aims to propose countermeasures to overcome contamination of images through an analysis of nimitta as it appears in the Pāli-Nikāya. From early on, the Buddha noted the problems raised by the contamination of nimittas, and emphasized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true nature of nimittas and mental development (bhāvanā) to remove the contaminated nimittas. Recently mental development in regard to nimittas is used as an instrument to develop concentration meditation (jhāna) rather than to arrive at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true nature of nimittas. There is also the worry that focusing solely on achieving concentration meditation without correct knowledge could have the adverse effect of obstructing meditation.

Such discussions regarding nimitta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 systematic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nimittas as mentioned by the Buddha. However, the research on nimittas in Korea is scarce, and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deal only with the practice of concentration meditation. Thus this paper seeks to arrive at a correct understanding of nimittas through an analysis of their context in the Pāli-Nikāya.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uses of the term “nimitta” in the five Nikāyas of the Pāli-Nikāya, and examined the key meanings and functions of nimitta in three aspects: nimitta as exterior image, nimitta as cause, and nimitta as mental image. Moreover, we sought to systematize the various meanings

and roles of nimitta by considering its role as a hindrance (nīvaraṇā)—associated with the arising and proliferation of nimittas—together with its role in mental development.

Keywords

Nimitta, Pāli-Nikāya, Mental image, Sensibility, Reason, Samādhi, Contemplation of the impure (asubha bhāvanā)

2017년 11월 01일 투고
2017년 12월 10일 심사완료
2017년 12월 15일 게재확정

